

완주 테크노밸리 활성화 · 어르신 버스비 무료 · 동서횡단철 착수

(신재봉 후보)

(안호영 후보)

(임정엽 후보)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⑤완주진무장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다野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이하 완진무장) 선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새로 확정된 선거구로 제19대 총선에서의 '김제시·완주군' 선거구와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 등과 비교될 수 있다.

이 지역은 총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새누리당 신재봉 후보(68),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52),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58), 무소속 민경선 후보(70) 등이 있다.

일부 언론사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완진무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가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또한 새로운 선거구 확정에 따라 발생한 '소지역주의'를 각 후보들이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하는 점도 이 지역 관심 포인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중 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도민일보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신뢰도 95%, 오차범위 ±1.4%p)에는 새누리당 신재봉 후보 5.0%, 더민주 안호영 후보 36.3%,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41.2%, 무소속 민경선 후보 2.0%, 모름/무응답 14.9% 등으로 임정엽 후보의 우세 속에 안호영 후보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일 뉴스 전북취재본부가 보도한 자료(신뢰도 95%, 오차범위 ±3.9%p)에 따르면 신재봉 후보 7.2%, 안호영 후보 40.2%, 임정엽 후보 46.0%, 민경선 후보 2.1%, 모름/무응답 4.5%로 안 후보와 임 후보가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후보들의 공약으로는 먼저 새누리당 신재봉 후보는 '총·효 전도사 기호 1번 신재봉'이라는 슬로건 아래 ▲완주 테크노밸리 활성화 ▲용담호 물관리 시스템 개선 ▲동부권 관광 벨트 사업 ▲진안 소재정교개 터널공사 ▲봉동공영 종합터미널 유치 등을 약속했다.

신 후보의 공약을 세부적으로는 공단·관 조성돼 있는 완주 테크노밸리에 대기업을 유



신재봉 후보

용담호 물관리 시스템 개선
진안 소재정교개 터널공사
완주 봉동 공영터미널 유치



안호영 후보

어르신들 한방 진료 지원
농업인 월급제 등 시행
무주 태권도대회 투자 지속화



임정엽 후보

전북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지덕권 한방치유센터 설립
장수 승마헬스힐링특구 조성

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기업을 육성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등부권 관광 벨트 사업으로 완주군 운주와 진안군 주천을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위락시설(집나이트, 서바이벌, 래프팅)과 편의시설·숙박시설 등을 건설해 충청권과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 공약으로 3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통 공약 중 생활복지 공약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을 먼저 내걸고 있다. 그는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방 진료 지원 88세, 100세 등 어르신 축하금 지급, 흑서기·흑한기 어르신 공동급식 및 공동 생활을 지원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민생경제 공약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 힐링푸드 사업 등 농업·농민을 위한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안 후보는 도농상생 지역공약을 통해 완주를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를 만들고 진안은 오리엔탈 힐링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주는 세계태권도 대회 및 평창올림픽과 연계해 투자자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장수는 힐링푸드와 연계한 교육기관 및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는 ▲동서 횡단철도(전주-김천구간) 조기착수 ▲전북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탄소 매카 육성) ▲지덕권 한방산림치유 개발센터 조성 ▲체질별 건강 가능성 쉼체소 특구 조성 ▲장수 승마헬스힐링 특구 조성 등의 5대 공약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전북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탄소매카로 육성 하기 위해 카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탄소·노뉴브리바이오에서 연구센터 건립, 친환경소재개발 연구기관 구축, 탄소융합부품 난제 기술개발을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전북지역이 농생명 산업 특구지역이라는 점에 착안, 체질별 건강 가능성 쉼체소 특구를 무주군 무풍면 일원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수 승마헬스힐링 특구 조성은 승마장 일대 레저 산업의 하나로 승마 시설을 세워 스포츠를 통한 힐링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별취재반

4.13 선거 RUN·RUN·RUN

강상구 후보 "흔한 공약 아닌 실현가능 공약으로"

정의당 강상구 국회의원 후보(김제부안)는 "매 총선마다 똑같은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공약을 지혜해 달라"고 호소했다.

4일 부안 유세에 나선 강 후보는 "재방송은 방송에서나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안을 정말 변화시키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후보는 부안 복지관을 방문 해 유세를 진행했으며 부안 금안교회, 바다의 향기 사회적 기업, 중증 장애인 행복 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또 바다의 향기 사회적 기업과 중증 장애인 행복 일터를 방문해 사회적 기업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 중증 장애인 최저 임금 보장의 어려움 등을 직접 들으면서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더불어민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어르신 일자리 증대 ▲의료비 절감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노인 일자리 증대

더민주 전북선대위, 3대 어르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어르신 일자리 증대 ▲의료비 절감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빈곤층 노인 40만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100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의 민생질문 약값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시키고, 경로당을 여가와 건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로 개설했다고 약속했다.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제공을 실현하고,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 후 소득 확보를 내세웠다.

김춘진 전북선대위원장은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하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주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상향 조정 · 노인 쉼어하우스 설립 등 분야별

국민의당 전북도당, 총선 정책공약 발표

갯벌해양생태벨트 조성

농산물 최저가격제 입법화

전북연구개발 특구 육성도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0대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전북도당 공약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뒀고 전북의 경제와 정치의 변화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보육여성복지 ▲노인 청년장애인 복지 ▲문화관광 ▲농업정책

▲경제와 일자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과학기술 ▲안전 관련 ▲교육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

보육여성복지는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출산용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청년장애인복지는 노인을 위한 쉼어하우스 설립과 청년희망주택을 공급하고, 장애인 인권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은 내륙과 서해안을 잇는 관광형 순환철도와 갯벌해양생태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또 농업정책은 농산물 최저가격제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를 보면 공정임금제

를 보장하고,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원스톱-희망리턴 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공약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적극 육성하고,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교육은 진로와 진학·취업 종합 포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함께하는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단대한 변화가 있는 전북을 위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면서 "국민의당 전북 10명의 후보 전원이 최선을 다해 이번 20대 총선을 통과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

70% "사드 배치 반대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3명 중 2명은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47명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문을 한 결과 66%인 31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정책질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후보 10명 중 7명, 정의당 후보 3명, 민중연합당 후보 2명, 무소속 후보 12명 중 8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후보 9명과 국민의당 정동영·조배숙·김중희 후보 등 16명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 반대 이유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협, 한중관계악화 등 주민피해 우려 등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북지역 후보 66%가 반대하는 것은 전북지역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정의당 전북도당

"도내 야권연대 참여 안한다"

전북지역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 더 당선을 시키기 위한 야권연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의당 전북도당은 "군산지역 야권단일화는 무슨 의미인가? 반새누리 전선을 형성해야 할 선거구도 아니고 단지 국민의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단일화 간 단일화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야권 전체의 승리가 아닌 오로지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야권 일에도 전복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여당 정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경쟁하고 견인하는 성명서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며 "전복에서 출마한 정의당 세 명의 후보는 정의당의 공약을 알리고 가능성을 홍보하면서 당선을 위해 될 것이며 목표한 정당 지지를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김춘진 후보, 농가소득 창출 등 농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김제·부안) 후보는 4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농업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이따른 FTA 협상 체결로 농어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농어촌 인구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농어촌은 성장 동력을 잃었다"며 "이에 도시보다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0대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농산물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기반 마련, ▲직불금제도 확대 및 현실화, ▲농수산물 생산비 및 정책자금미 인하, ▲농어촌 난방용 유류 면세유 공급, ▲미래 농업인 육성,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제공, ▲농어촌생활환경 개선대책 마련 ▲농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재해대책 마련, ▲도농간교육양극화 극복, ▲농어촌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이다. /특별취재반



남원시장 선거 등에 출마했던 강춘성 (전)남원부시장과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홍승제 (전)서울시의원 등을 포함한 남원·순창 지방의원 출신의원들이나 지지부진체질이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임실·순창·남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후로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정치혁신에 매진해 오신 이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이것은 남원 임실 순창에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총선에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남원 임실 순창의 새로운 발전과 2017년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